

새 단장한 '전북e스쿨' 오늘 개통

17개 시·도교육청 온라인 학습 사이트 하나로 통합... 사교육 절감·교육격차 해소 기대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그동안 시·도교육청별로 개별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사이버학습을 e학습터 '전북e스쿨'로 개편하고 12일 시·도 통합 서비스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통되는 '전북e스쿨'은 사교육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4년 시·도교육청이 개별 구축·운영하였던 서비스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먼저, 초3~중3학년의 개정 교육과정

콘텐츠, 교수학습자료, 평가문항 등이 무료로 제공되어 학생용 자기주도학습 및 교사용 교실수업 활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학습·평가문항·기초튼튼 등을 신규 개발하고, 기존 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보유한 학습 동영상상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요즘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반영해서 학습주제를 짧은 동영상에 압

축적으로 담아서 학생과 교사가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수업, 자율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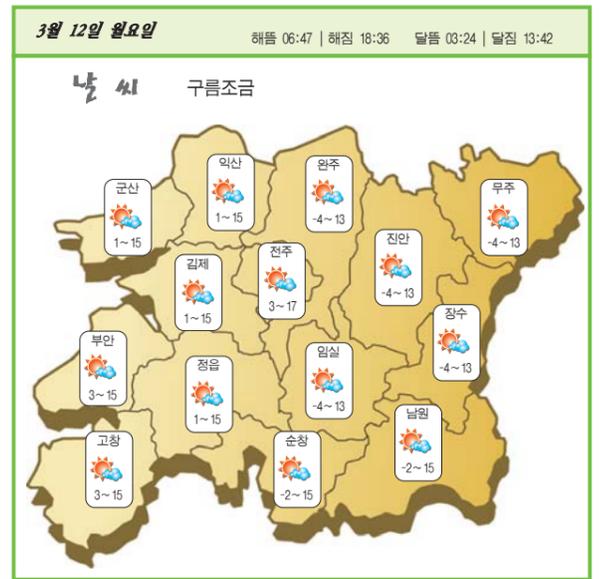
또한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교사들이 사이버학습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기반 학습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용 방법은 '전북e스쿨' 홈페이지(<http://eschool.tedu.kr> 또는 www.이학습터.net) 접속하여 에듀넷 회원가입

후 자신의 학년·학습과정을 선택하여 희망하는 과목 등을 수강신청하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 PC 및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패드)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김갑식 원장은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국 서비스인 만큼 학교현장에 잘 안내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더욱더 친근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천호성도교육감 예비후보 "미투 운동 적극지지할 것"

실천적 교육혁신가인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천 후보)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미투(Me Too) 운동을 적극지지 한다"고 발표했다.

천 후보는 "미투 캠페인은 SNS에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고백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고 정의했다.

이에 천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는 봉인됐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숭고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제 우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여성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성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최근의 스물 미투라는 교육계 미투 운동이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천 후보는 "어떤 분은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누구한테도 그걸 말하지 못하다가 서른 살이 되어서야 겨우 얼마한테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위계의 질서라는 알량한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관리자와 교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성폭력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단호한 대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이 벌어지는 공간에서 그 어떤 성폭력도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전북의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과 비전이 주목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순백의 노루귀꽃 지난 9일 오전 어느 산기슭에서 봄의 전령 노루귀 꽃이 꽃망울을 터트리 봄을 알리고 있다.

초중고 찾아가는 '꿈지락 문화예술+' 지원

도내 360개교 대상 이번 달까지 대상학교 공모... 문화소외지역 우선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36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동체 기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꿈지락 문화예술+'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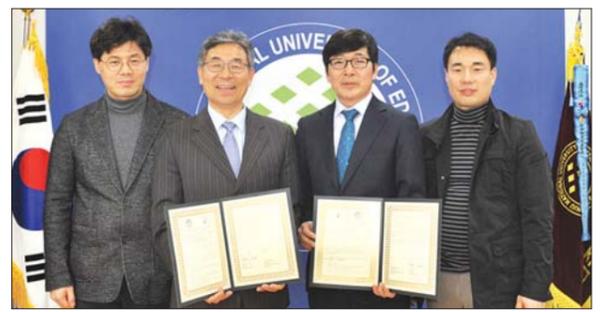
지난 9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360개 초·중·고에 찾아가는 문화예

술학교 '꿈지락 문화예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농어촌학교 등 문화소외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 기여형, 소모임 성장형, 참여 체험형, 감상 교육형, 기타 등 5개 유형을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달까지 대상 학교를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360개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소규모 문화예술 프로그램 외에도 14개 지역에서 2회 개최하는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도 개최하며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총30억원의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는 3월 19일 오후 3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실시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교대-美 블룸필드 대학 MOU 체결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최근 국제적인 안목과 학식을 지닌 초·중·고교원 양성을 위하여 미국 블룸필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블룸필드 대학은 1888년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4년제 명문 대학으로 여학 및 교원 연수, 간호, 보건 등에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년에는 전주교대 5명의 학생이 4주간 American Language Center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문

화어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MOU에서 두 학교는 학생·교수·워크숍에 대한 정보 등을 교류하고 교환학생의 적응을 위해 어학습득을 지원하며, 연구 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우영 총장은 "미국 대학과 MOU를 체결한 만큼 학생들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예비교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새로 위촉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 관련 정책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 위원은 도민 공개모집 2명, 교육단체 추천 2명, 인권유관단체 추천 5명 등 총 9명이며, 6.13 지방선거 이후 전북도의회 추천을 받아 1명을 더 위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2~22일 공모 후 새 위원들을 선발했다.

3기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학생인권실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해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심의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